금속노조통신 002호

발행일 2022년 01월 11일(화)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금속노조, 민중총궐기 성사 조직 나서

15일 서울 집중 불평등 체제 청산 민중총궐기 … 노동자·민중 거리 투쟁, 체제 변화 만들어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이 1월 15일 여는 민중총궐기 조직에 나섰다.

'보수양당체제 타파, 불평등 체제 청산, 자주평등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가 닷새 남은 1월 10일 노조 임원들이 각 지부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해 대회 성사를 위해 조합원 참여를 독려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서울지부 Kcar지회 사무실에서 연 지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1.15 민중총궐기는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선포해 이미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코로나 19 감염병과 기후위기,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민중의 빈곤과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대전환기에 노동자·민중이 거리의 투쟁으로 체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4일 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대간부를 비롯해 참가희망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충남지부, 함재규 부위원장은 기아차지부, 손덕헌 부위원장은 경주지부, 권수정 부위원장은 충남·대전충북지부, 박경선 부위원장은 인천지부, 홍지욱 부위원장은 부산양산지부, 김동성 부위원장은 전북·광주전남지부, 박찬일 부위원장은 경남지부, 엄교수 사무처장은 구미지부 운영위에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총력 조직을 당부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민중 진영은 1월 15일 대규모 서울 집중 민중총궐기 투쟁을 성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투쟁, 민주노총 대선 요구와 불평등 체제 교체를 사회 쟁점화하고,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힐 방침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촛불 민심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의제를 배제한 채 자본과 기득권을 위한 구태 공약을 남발하고, 우경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당하게 기록하고, 낭랑하게 읽다

금속노조·진보당 『여성노동자, 반짝이다』 낭독회 열어 … "모든 노동자·사람의 이야기"

금속노조와 진보당이 『여성노동자, 반짝이다』(금속노조 지음, 나름북스)를 함께 읽고, 금속노조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극장에서 '김재연×금속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 반짝이다』 낭독회'를 열었다. 낭독회 부제는 '언니가 만들어온 길을 따라 우리가 갑니다'였다. 진보당은 유튜브 채널로 낭독회를 생중계했다.

낭독자로 ▲김진숙 지도위원 ▲권수정 노조 여성위원장 ▲김현미 노조 전 부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엄미야 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 ▲고은아 노조 울산지부 전 사무국장 ▲황미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전 지회장 등 여덟 명이 나섰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낭독 영상을 보내왔다.

축사를 위해 낭독회에 참석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여성 조합원이 1만 명 조금 넘는다. 수치로는 6%다"라면서 "현장 곳곳에서 투쟁하고 현장을 지킨 여성 동지들이 있었기에 금속노조가 19만 조직으로 강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금속노조 여성 조합원 동지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라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책 만드느라 고생한 권수정 노조 여성위원장과 김은혜 여성국장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낭독회 여는 말을 통해 "금속노조 여성들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읽어보면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여성 노동자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여성 노동자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낭독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낭독과 낭독 사이에는 권수정 노조 여성위원장과 김재연 대선후보가 책 이야기, 여성과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관한 수다를 펼쳤다.

권수정 여성위원장은 "어떤 계기로 책을 기획했느냐"라는 질문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금속노조 20년 역사를 정리하는 기획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김현미 당시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여성 노동자의 역사를 정리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다"라고 답했다.

김재연 후보가 "여성들의 민주노조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권수정 여성위원장은 "나의 요구, 나와 동지들이 함께 토론해서 만든 우리의 요구에 대한 집행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답했다.

낭독과 대담을 마친 참가자들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공론화하며 화제가 된 금속노조 개정 모범단협안을 함께 읽으며 행사를 마쳤다.

금속노조는 최근 모범단협안 개정안에 성별, 장애 유무, 출신 국가, 정치 성향, 성적 지향 등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성소수자 조합원도 단협 적용을 받도록 가족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

『여성노동자, 반짝이다』(금속노조 지음, 나름북스)는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조업 여성 조합원의 투쟁사를 기록한 책이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가 기획했다. 이 책은 치열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금속노조 여성 조합원들의 투쟁을 증언과 기록의 형태로 담고 있다. 지난해 출간 이후 노동운동과 여성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따뜻한 평가를 하고 있다.

금속 한국타이어지회 과반노조, 아싸! 투쟁!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교섭 요구 선포 … “노동자 가슴 펴고 다니는 현장 만든다”

2014년 설립 이후 7년 동안 소수노조였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과반수 노조임을 선언하고, 한국타이어 60년 어용의 굴레를 벗기 위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1월 7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한국타이어 2022년 금속노조 교섭 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최근 잇따른 조합원 가입으로 과반수 노조가 됐음을 공표하고, 2022년 임단협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파업 투쟁이 12월 기업노조 위원장의 직권 조인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기업노조 탈퇴와 금속노조 가입이 물밀 듯이 이뤄졌다”라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제 당당히 과반수 노조로서 2022년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는 노동조합에 개입하지 말라”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지회의 교섭과 권리행사를 막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부는 조합원 회유·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금속노조 가입 방해 중단을 못 박았다.

박종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한국타이어지회는 소수노조로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투쟁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끌었다”라며 “이 힘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직선제와 59년 만의 파업 투쟁을 힘차게 성사했다”라고 평가했다.

김용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타이어 역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한 기업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결정했으나 결국,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말았다”라면서 “직권 조인하지 않겠다더니, 8시간 만에 말을 바꿔 직권 조인해 현장 노동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라며 분노했다.

김용성 지회장은 “2022년 금속노조가 1 노조가 됐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는 노동자를 대표해 교섭권을 쟁취하려 한다”라며 “지회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투쟁해 노동자들이 가슴을 활짝 펴고 다니는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김용성 지회장은 “사측은 바뀌지 않았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반드시 사측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며, “한국타이어에 어용노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큰 싸움을 벌이겠다”라고 결의했다.

한국타이어는 59년 동안 어용노조 굴레에 묶여있었다. 한국타이어 교섭대표노조였던 한국노총 기업노조는 사측이 연월차 폐지, 통상임금 축소,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뺏는 동안 거수기 노릇을 했다. 최근 직업성 암 인정 기준 확대를 막기 위해 사측 대신 노동부 관료에게 접대와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기업노조는 지난해 11월 24일 노조 설립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으나, 12월 17일 위원장 직권 조인으로 파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 노동자 사이에서 사측이 쌓인 재고를 털기 위해 벌인 기획 파업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직권조인과 어용노조 실망한 노동자들이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에 대거 가입하면서 지회가 1 노조가 됐다. 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1월 7일 2022년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한국타이어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